



연수 보고



일본 정촌자치 사례에서 한국 읍면자치의 미래를 보다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 2차 집중학습회

2017년 7월 창간, 96호 발행

자치X자급X생태
공간X공동체
사람
문화X역사





자치X자금X생태

078



읍면자치 공동행동 발족식 참가자들이 읍면자치 활동 강화를 위한 각자의 다짐을 적은 손켓알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공익법률센터 농본>

079

읍면자치(1)

"농촌의 일은 주민이 결정한다"

기후위기·지역위기를 돌파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새로운 출발점, 읍면자치권 확보 운동이 공식 출범했다.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이하 읍면자치 공동행동)' 발족식이 지난 3월 14일 오후 12시 30분, 충남 홍성군 장곡면 오누이권역 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농촌·마을 활동가 60여 명이 함께해 읍면자치권 확보 운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능케 했다.

'읍면자치로 만드는 희망농촌'을 목표로 내건 읍면자치공동행동은 △자치분권(읍면자치권 확보를 통한 농촌 주민주권 실현) △균형발전(읍면 기반 주민 주도 지역 만들기) △지방위기(농촌재생 읍면 거버넌스 혁신) 분야의 세 가지 운동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지방자치 주체는 주민'임을 명시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지

방자치법을 개정해 읍면자치 기반을 확대하는 것까지 아우른다.

이와 함께 △읍면 단위 풀뿌리 활동조직 전국 네트워크 구축 △읍면자치 공동학습회 △전국대회 개최 및 공동 정책협약안 작성·전국 결의문 채택 △읍면자치권 확대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캠페인 개최 등을 올해 4대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읍면 주민 권한 확대... 법 개정 추진

법 개정 방향 중 하나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주민이 발안권을 가지며, 주민투표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 또한 주민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회·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사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방안도 향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예시>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 개정

(발안권) 주민은 발안권을 가지고, 주민 발안은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의사형성권) 주민은 주민 의사 형성을 위해 총회, 주민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조직권)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마을회,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마을회와 주민자치회는 공공사무수행을 위한 협력과 위임·위탁의 주체로 위상을 가진다.

-읍면자치공동행동 발족식 자료 중 발췌

자치X자금X생태

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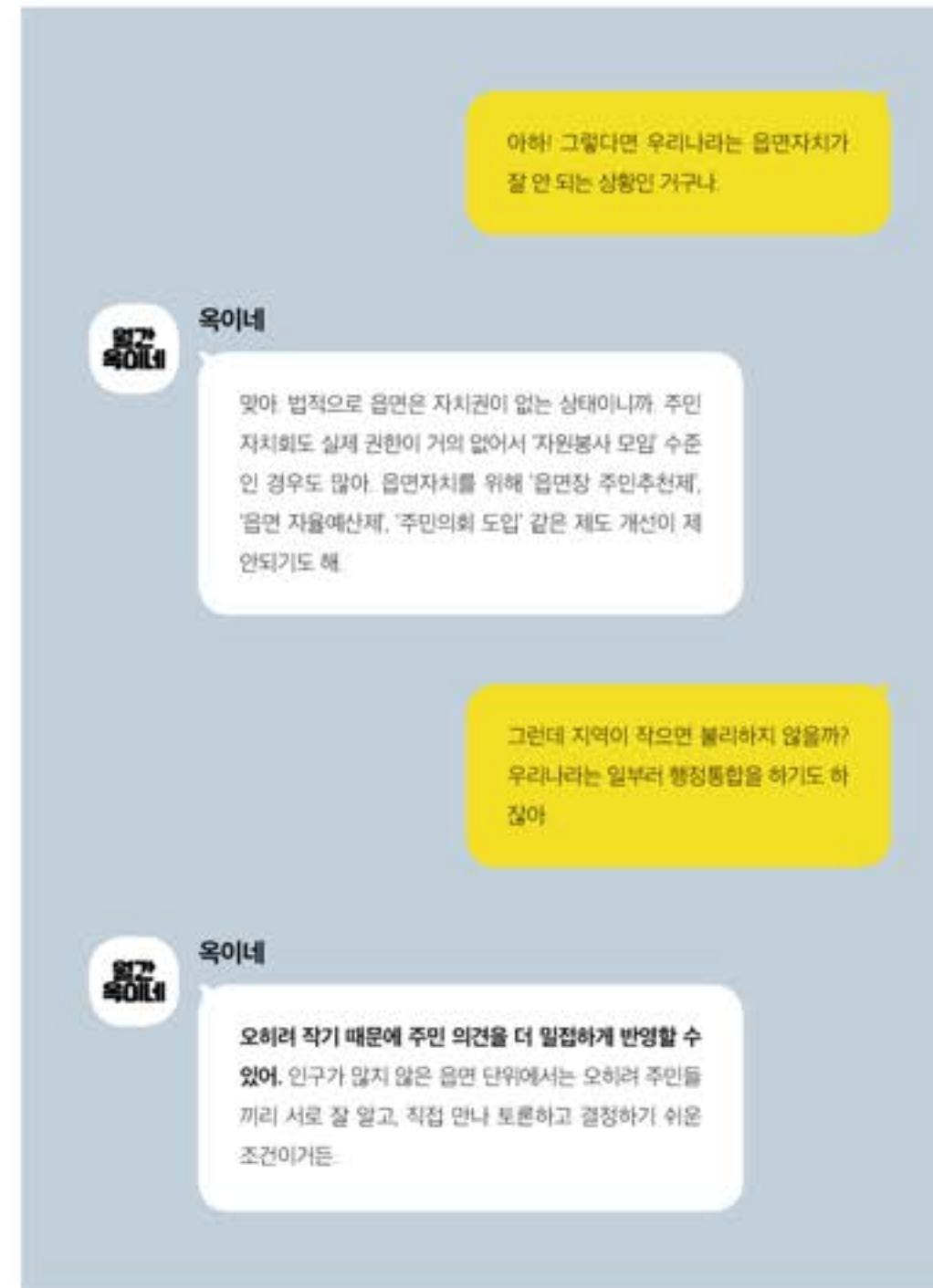
읍면자치? 어렵지 않아, 옥이네가 알려줄게!

'읍면자치'는 생소하지만, 농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월간 옥이네가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Q&A 형식으로 읍면자치의 개념과 필요성을 정리했습니다.



085

읍면자치(2)



자치X자금X생태

088

“주민이 주인이다”

일본 정촌에서 배우는 자치의 힘

읍면자치공동행동 1차 집중학습회 현장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물뿌리 공동행동(이하 읍면자치공동행동)’의 첫 번째 집중학습회가 3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충남 홍성군 장곡면 오누이간역 센터에서 열렸다. ‘일본 농촌 정촌자치의 역사적 경험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학습회에서는 동경다마치치체문재연구소 전 이사장인 이케가미 히로미치 시마루대학 명예교수 호보 타케히코 씨를 초청해 일본 정촌(町村)을 중심으로 본 지방자치 역사, 구조적 특징, 최근 행정, 구체적 사례를 들어봤다. 강의 통역은 마을연구소 일소공동 협동조합 구자연 소장이 맡았다.

중앙정부의 부속 단위가 아닌 민주주의 핵심으로서 주민의 직접 참여와 의사결정을 가능케 할 읍면자치. 우리에게 아직 낮은 읍면 단위 자치의 가능성과 방향을 살펴볼 수 있던 이틀간의 학습회를 정리해 달는다.

이번 이번 학습회는 읍면자치공동행동, 공익법률센터 농본, 마을연구소 일소공동 협동조합, 마을학회 일소공동, (재)지역재단이 주관·주최했다.

“강연 현장에서 진행한 질의응답, 보충설명 등은 월간 옥이네 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케가미 히로미치 전 이사장



호보 타케히코 명예교수
<시마루대학 공익법률센터 농본>



삶이 박물관이 되는
마을의 자부심

여치무와 민촌백물은 구심과 원심자이다

한미 교역에서 한 주위를 통해 많은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서양을 넘어주기는 주류가 되어있을 필요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 실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하여 무역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책을 단순히 지식·기술만으로 파악해 읽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얻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지를 읽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1990년대 말에 출판된 것으로, 당시의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상여 하신 십자가로 움직이는 마음

여기서부터는 『연꽃의 열매』와 2008년과 2009년의 두권의 일련성이 온 여는 열매를 이룬다. 이 구조는 '연꽃'이라는 여를 직접 공간이나 시간적 연결하지 않고, 여를 한쪽에 살아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식'에서 출발한다. 오히려 나머지는 온갖 여를 '여의 모든 것'에 여를 관여시켜 확고하며, 여를 앞의 열매를 이룬다는 '식'에서 출발한다.

그 시점은 지역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었다. 그러나 그 만큼 종교 교육 문화의 결핍도 남는 통째로 봐야겠다. 문화에 모순이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의 욕망의 삶을 만들어내고 일깨워야 해주는 과정 자체가 커다란 숙제는 아닐까. 다시 말해 이는 단일 시점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과 지역에 긍정적 변화 구조를 만들어주는 행동이다.

국민의 요구가 현실이 되는 곳.



주요 공익단체 대표 인사 14명



【参考】
【参考】

페노시르코코렌이르의 엔타가 개관한 1994년은 도서관 운동으로 유명해 여러인이 나서서 여기 페노시르코코렌 설립 시기였다. 여러인이 사명을 공공기관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졌다. 도서관 자료는 주민의 정보에 관한 열을 자체에 활용되어야 한다. 열하면 여러인이 자료를 보며 다른 사람 시선을 끌었다. 그로서는 비록 페노시르코코렌은 시정당에서 운영한 도서관이 시정당에서 운영되고 있다.



▲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해당 기간 동안 본지에
광고하신 분은 10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단, 100% 할인 혜택은 12월 15일
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일본에서도 '초월' 기능 속성인지는 개성의 대부분"으로, 요코하마 연구결과는 사실상 국내 다. 아직부터 역시 2008년부터 연구의 40%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초월능력 5단계 중 4단계"를 유지를 무제한"대학"보여지고있는 상황이며, 요코하마 및 동경은 "대학"이 아닌 국민이 제법 높은 보충제와 관련된 "책"을 만들어 줄수있는지 위해서는 반드시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월소득 500만 원 이하 중 약 300만 원 이하인층
 증가해 왔습니다. 그해 선거에는 박은 후보가

인간으로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공생체로만 불
명해질 길을 택할 것인지 두 가지일 뿐이다. 라는 작
은 과학책이름을 보면 커다라가 참아 알고, 만
약의 효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
다. 앞으로 초소형 무인이 늘어남으로, 사람 이름
과 연결해 공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아득 참모를 생각하니!

의문 답답한 마음, 달라는 주위를 알아보다가 겨우
본다 적어 그 해설에 답하러를 보여주는 사례는

2008 12 15 14:54:58

여러모양의 군면적지는 많은한 지역을
 밭을 남어 밭추주의와 한을, 그리고 군
 제의 의미를 되살린다. "물리는 내구면
 있어 아니다. 밭을 파기는 것이 시골의
 제 물"이라는 표현은 조지프 윈 존슨의 말
 이다. 군의 땅이 땅에 안고 있는 것은
 밭과 그 안에 놓인 곡재를 돌아서 보아
 다. 작은 제비새가 서한 문장은 녹록
 이다. 마치 그림자처럼 밭에 걸린 것은
 밭과 그 안에 놓인 곡재를 돌아서 보아
 다. 작은 제비새가 서한 문장은 녹록
 이다. 마치 그림자처럼 밭에 걸린 것은

© 2004 Blackwell Publishing Ltd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255: 105–112

아치무라에서 본 일본 농촌 교육자치

[illegible]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

학교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교육 현장에서 교원
인력개발 사업이 실시되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다.

2004年10月10日 星期六

교육청은 현재까지 추진, 지역이 일치해 있으며
과거 선거때(2018년, 2022년)과 이후 임명제로 변경
교육청별로 2023년 4월은 교육청마다 상이함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물시방 인사전문 자문위원에게 접근하고 입회하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교직원 대열에서 거두지는 교사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 30~40%정도의 교사가 있고 지역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4-15-16 **2015-16**

- 일제강점기 교육정책이 추진된 구조
- 일제강점기 교육정책 추진하는 구조로 인해 실패한 교육 정책
- 전후 초기의 7급공채 관제에서 현재는 정예관제 및 차 계급하는 관제로 변화

기초지자체 평균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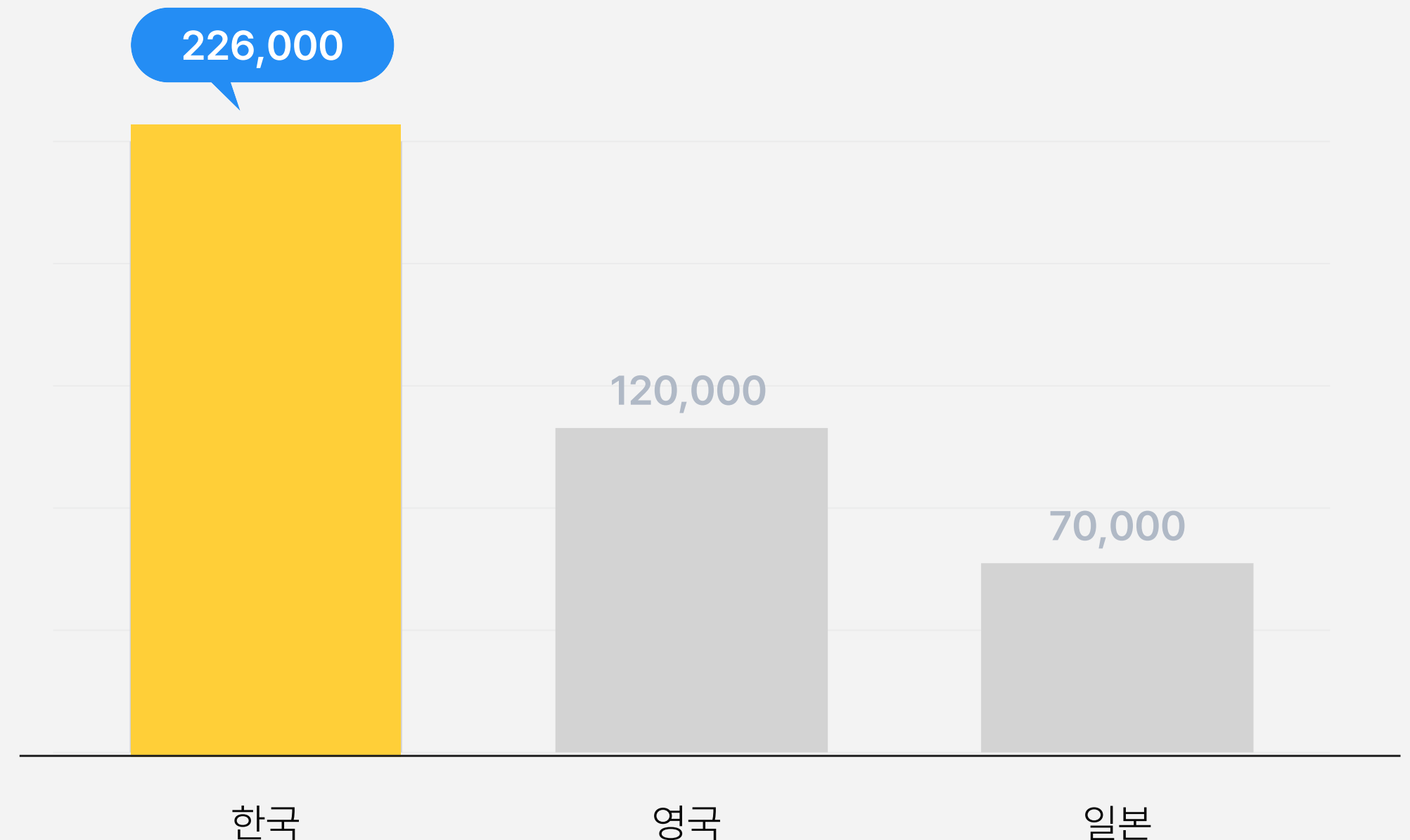
출처: 읍면자치 공동행동 2차 집담회 자료집

이런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 읍면 규모에서 자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큰 규모에서는 주민 참여가 쉽게 이루어질 리 없고, 그만큼 자치 효능을 체감하기도 어려운 게 우리 현실이다.

- 월간 옥이네 5월호 읍면자치 공동행동 2차 집담회 기사 중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압도적
1위**



일본 방문지

5.13~5.18

우리와 달리 읍면에 해당하는 정촌이 자치단체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일본. 이번 연수에 서는 농촌 재생 - 농산어촌 유학, 돌봄복지, 주민자치, 관계인구 등의 혁신 사례가 일어나 는 작은 자치단체 현장을 돌아보고 우리 읍면자치의 상상력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아치무라

인구 5,700명 규모

-전촌박물관 구상, 협동활력과
-자치회와 '일하는' 공무원

야스오카 무라

인구 1,400명 규모

산촌유학, 노인돌봄, 관계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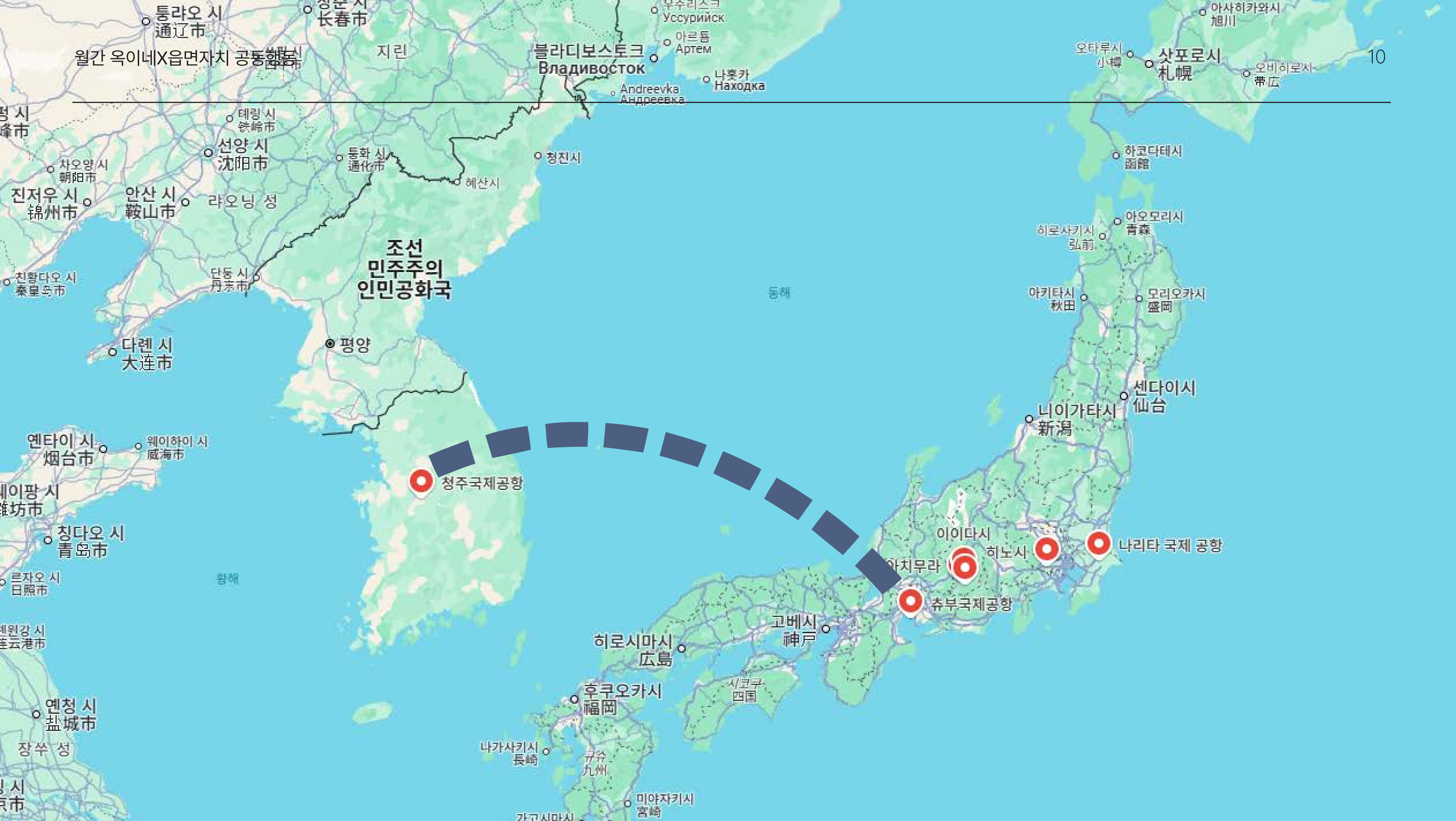
작지만 빛나는 자치체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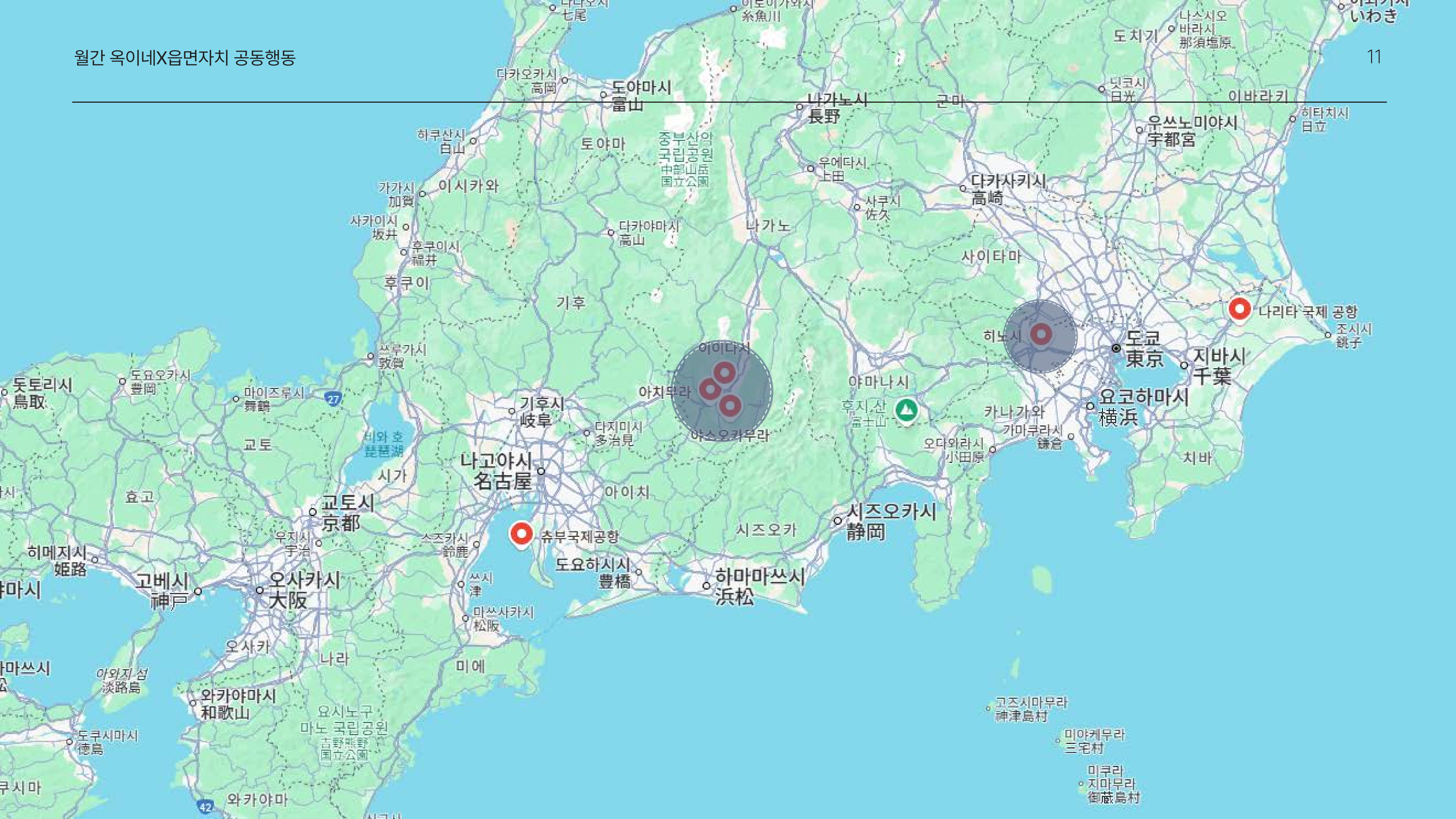
-일본 정부의 시정촌 합병에 반
대하는 소규모 정촌 포럼

히노시

인구 19만 명 규모

-시정도서관, 평화와인권과
-주민자치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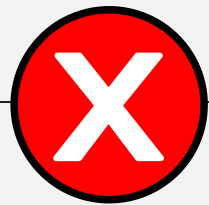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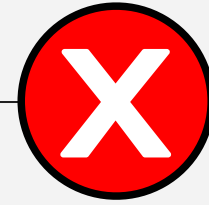
Guide

일본 사례를 보기에 앞서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상상력을 제공하지만, 맥락과 제도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히려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본 정촌자치는 오래도록 이어져 내려온 공동체 정신과 헌법, 제도 위에 성립된 것임을 기억하고, 그 배경과 한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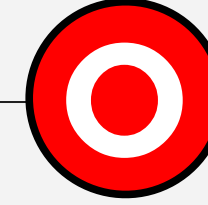
무비판적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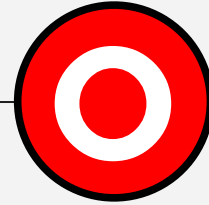
문화, 역사, 정치 등 상이한 여건

갈등, 한계, 지역 간 격차 존재

비판적 해석과 재구성 필요



맥락과 전제 이해



기초지방정부=정촌

자치회 등의 지속성

재정권, 인사권 등 자치권한 유무



츠마고주쿠

월간 옥이네X읍면자치 공동행동

에주쿠(나카센토)
馬籠宿

나카쓰가와시
中津川市

E19

363

418

히라야무라
平谷村

우루기무라
売木村

네바무라



이이다시

153

다카모리마치
高森町

다카기무라
喬木村



아치무라

152

152



야스오카무라

418

아난조
阿南町

덴류무라
天龍村

오시카무라
大鹿村

13



아라카와
荒川岳



아카이사 산
赤石岳



데카리 산
光岳

아치무라

E69



- 나가노현 시모이나군 남서부, 기후현 경계에 위치
- 90% 이상이 산림
- 사회교육 발달, '주민주체 마을'
- 고령화율 36.5%
- 2045년 3,800명, 46.7%
- 공무원 82명, 의원 12명, 56개 자연마을, 8개 자치회
- 촌립학교 6곳
- 비핵평화자치단체선언(1985)
- 만주몽고개척평화기념관(2013)



우리가 기대하는 '지역주권'은 주민 생활에 대해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 위에서 지역의 자주, 자립을 진전시키는 것이다. '지역주권'이란 애매한 말이 아니라, '국민주권', '주민주권'의 완전 실시를 통한 지역정책이다.



'아치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아치무라 종합계획/현재 6차(2023~2027) 진행 중

정보공개, 주민참여, 학습 중심 의사결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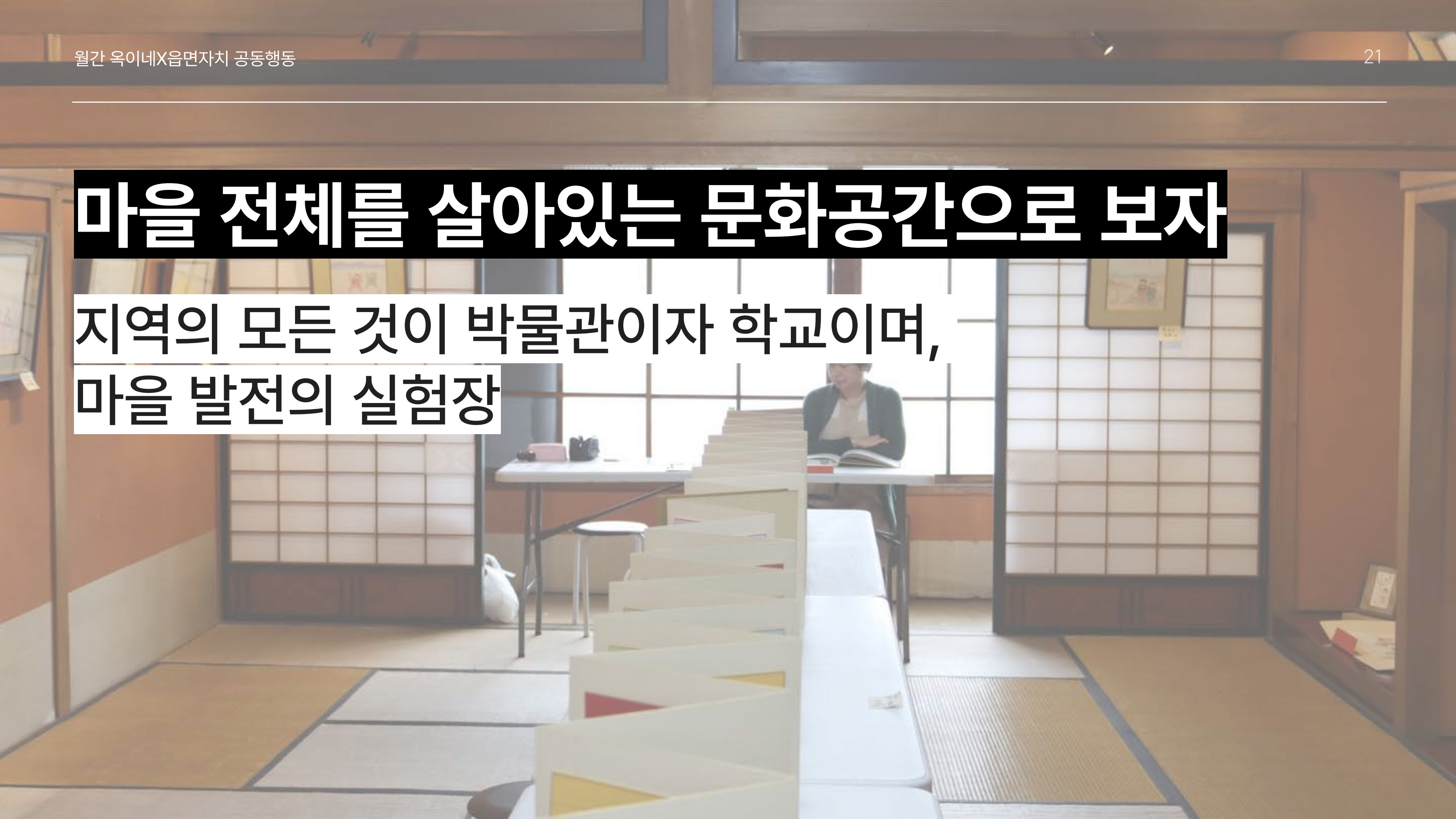
행정·의회 소식지 발행 및 순회 설명회
자치회별 예산 편성 의견 수렴 및 결산 정보 공유
'위원회' 구성으로 마을 의제 발굴 및 학습, 정책 실행
매년 1회 사회교육연구집회 개최

전촌박물관 구상



마을 전체를 살아있는 문화공간으로 보자

지역의 모든 것이 박물관이자 학교이며,
마을 발전의 실험장



'주민과의 관계'를 중심에 둔 행정

'협동활동추진과' & 전촌박물관협회 사무국장
오오이시 마키코 씨



通知表を半分拡げて

撮影：昭和26年



休み時間はまだ力中(授業はもう終わり)

撮影：昭和28年







코마바 자치회. 마을만들기 위원회



- 아동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당
- 주민 힘을 넘어서는 규모 지양
'꿈은 크게, 사업은 명확하게, 협력은 한정해서'
- 마을의 상황에 맞게 논의, 조정하는 정책과 활동

**"자치회가 건강하게 운영된다면,
추후 아치무라가 다른 지역과
합병하더라도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코마바 자치회장&전촌박물관협회장
하야시 시게노부 씨**



월간 옥이네X읍면자치 공동행동

이이다시

256

츠마고주쿠
妻籠宿



고메주쿠(나카센도)
馬籠宿



나카쓰가와시
中津川市

E19

에나시
恵那市

363

성
跡



시모조무라
下條村



히라야무라
平谷村

아난조
阿南町

418

네바무라
根羽村

우루기무라
売木村

418

덴류무라
天龍村

152

데카리 산
光岳



아카이사 산
赤石岳



152

다카모리마치
高森町

마쓰카와마치
松川町

오시카무라
大鹿村

나카가와무라
中川村

飯島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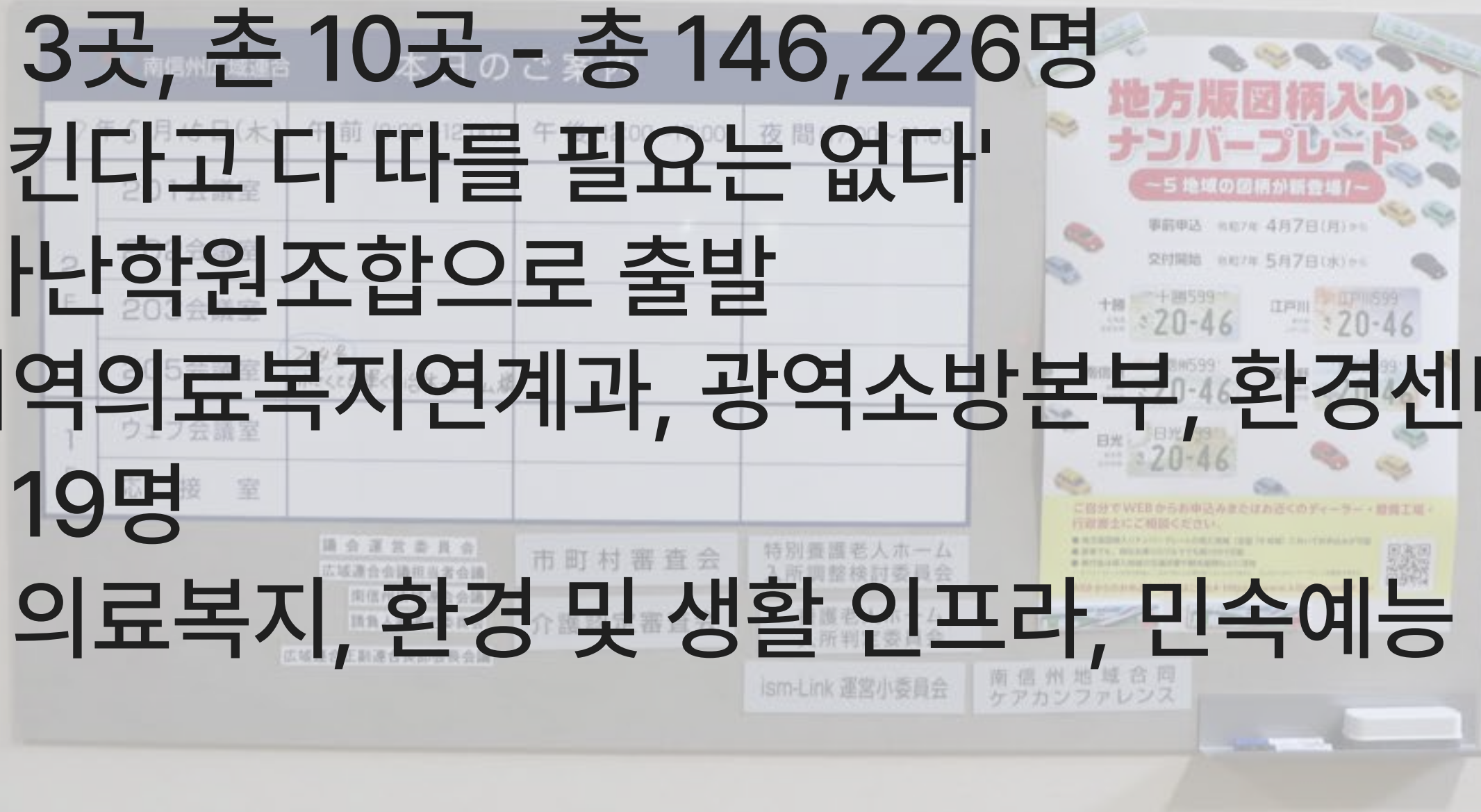
미나미알프스
국립공원
南アルプス
国立公園

후지
富

미나미신슈 광역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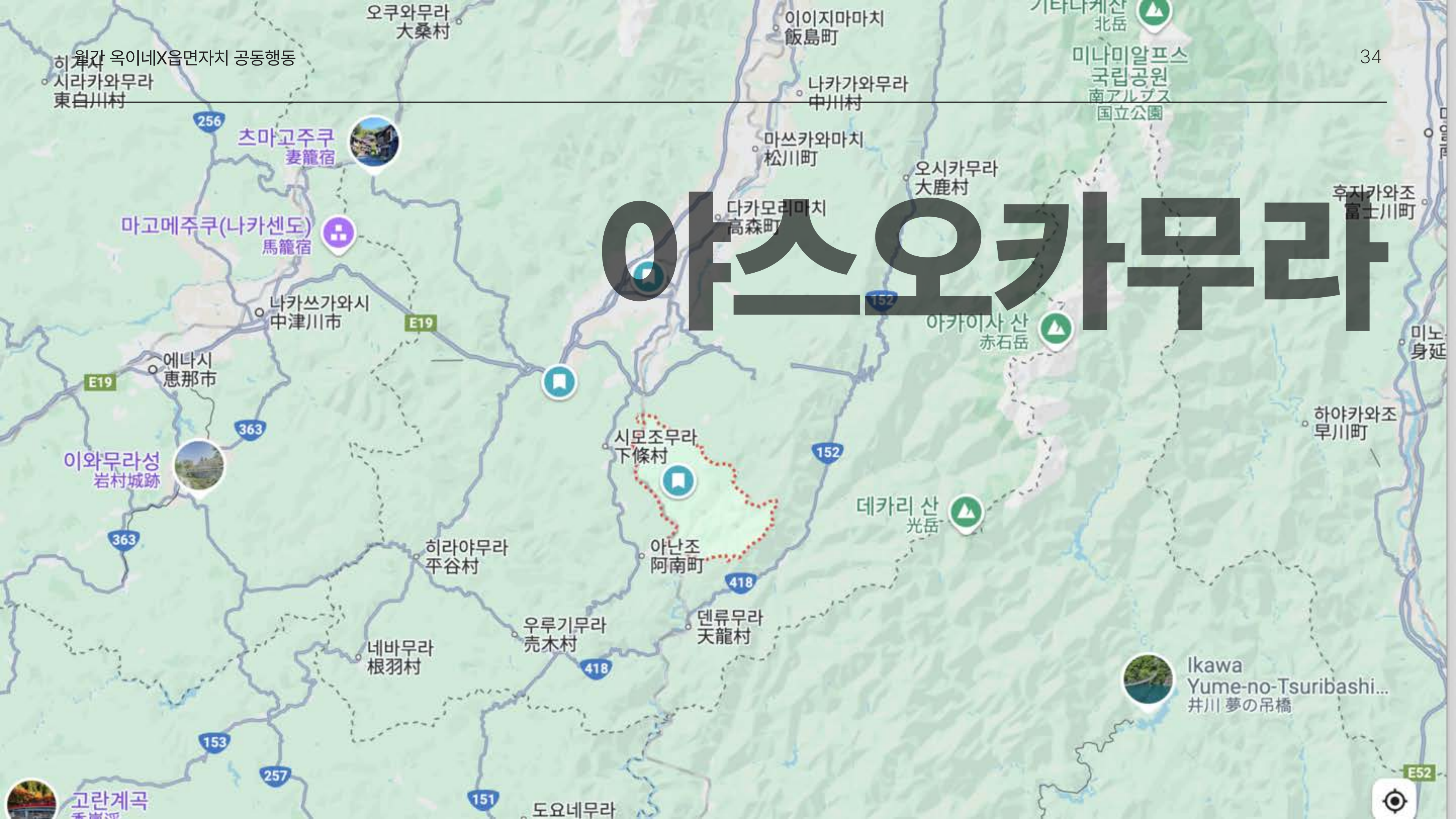
- 나가노현 남부 내륙 산간 지역
- 시 1곳, 정 3곳, 촌 10곳 - 총 146,226명
- '국가가 시킨다고 다 따를 필요는 없다'
- 1957년 아난학원조합으로 출발
- 총무과, 지역의료복지연계과, 광역소방본부, 환경센터 등
- 사무국 총 19명
- 공공교통, 의료복지, 환경 및 생활 인프라, 민속예능 보존



"행정 제도는 대규모 지자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기 때문에
작은 지자체는 계속 현실에 부
딛히게 된다. (...) 초광역연합
과 달리 기초지자체 연합은 훨
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을
한다. 중요한 건 '무엇을 어떻
게 함께할 것인가'이다."

미나미신슈 광역연합 사무국장
요시카와 마사히코 씨

아스오카무라



작지만 반짝이는 자치체 포럼



- 의전이 없다
- 일찍 자리를 뜨는 지자체장이 없다
- '합병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 일본 농산촌 자치체 간 네트워크

わたし × 地域

あなたが変わる1年間

緑のふるさと協力隊は農山村で暮らしながら
地域のお手伝いをする1年間のチャレンジ。
五感をフル稼働させ生きること、働くことと
向き合う時間がそこにあります。
あなたも「生きる」を実感してみませんか？

隊員募集

大川村のな
フリスポート

第32期 緑のふるさと協力隊
2025年4月4日(金) - 2026年3月15日(日)
18歳~概ね45歳までの人、参加期間を通じ、現住所を離れて活動できる人

〒104-0032 東京都中央区八丁堀4-11-3 金谷ビル2階201
TEL 03-5542-0132 FAX 03-5542-0136

no+e 緑のふるさと協力隊

地球緑化センタ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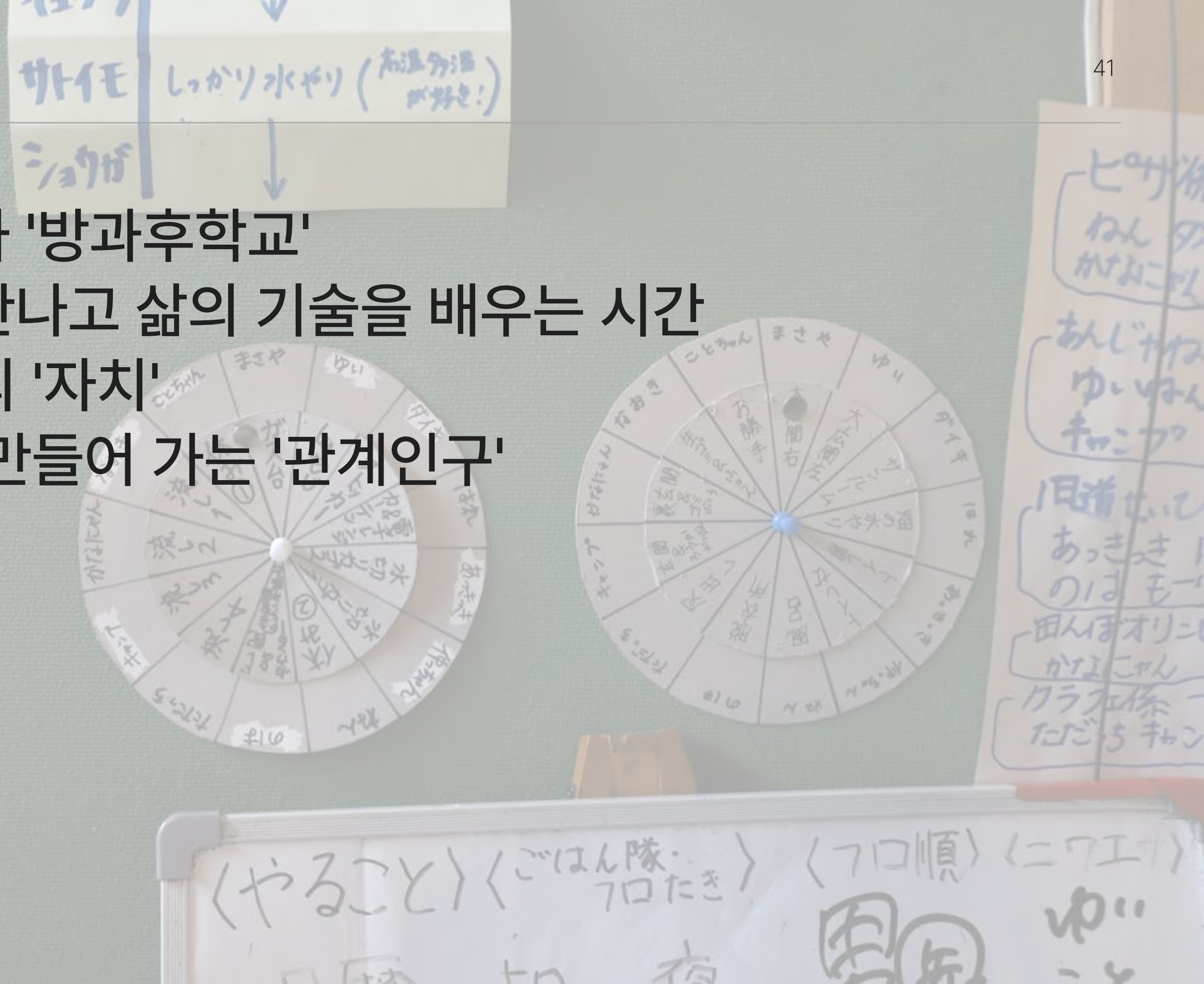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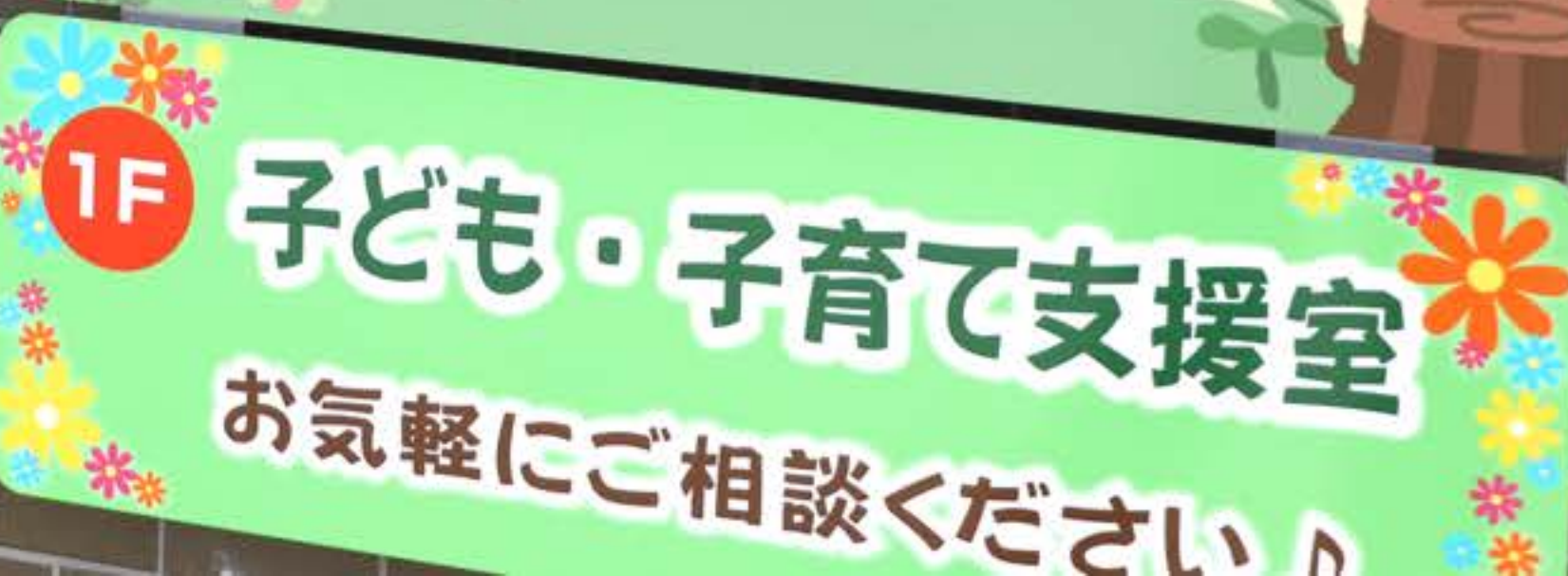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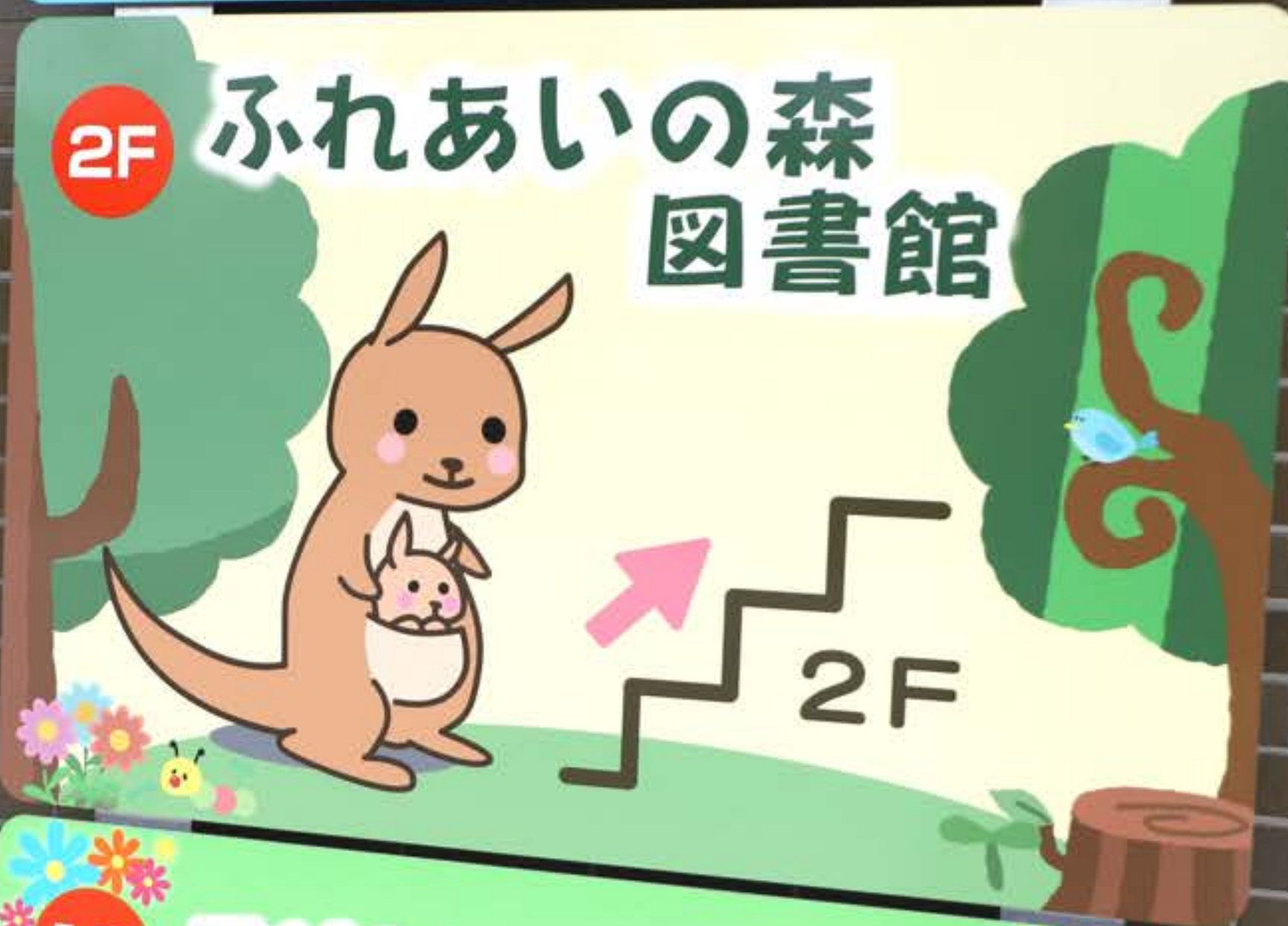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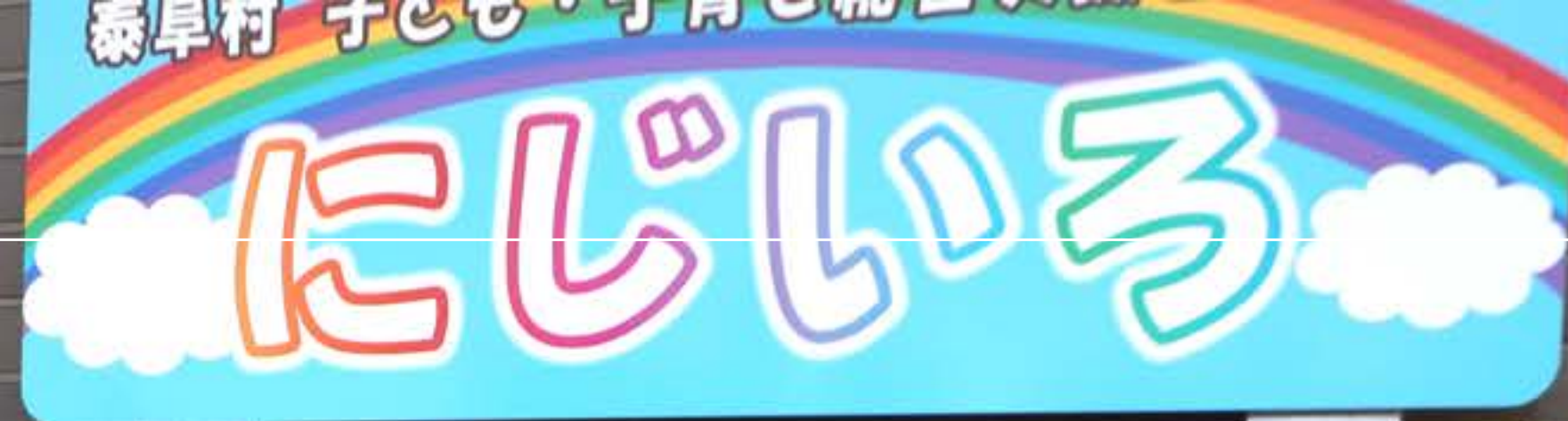






- '산촌유학센터'와 '방과후학교'
- 지역 공동체를 만나고 삶의 기술을 배우는 시간
- 어린이, 청소년의 '자치'
- 자립, 연립으로 만들어 가는 '관계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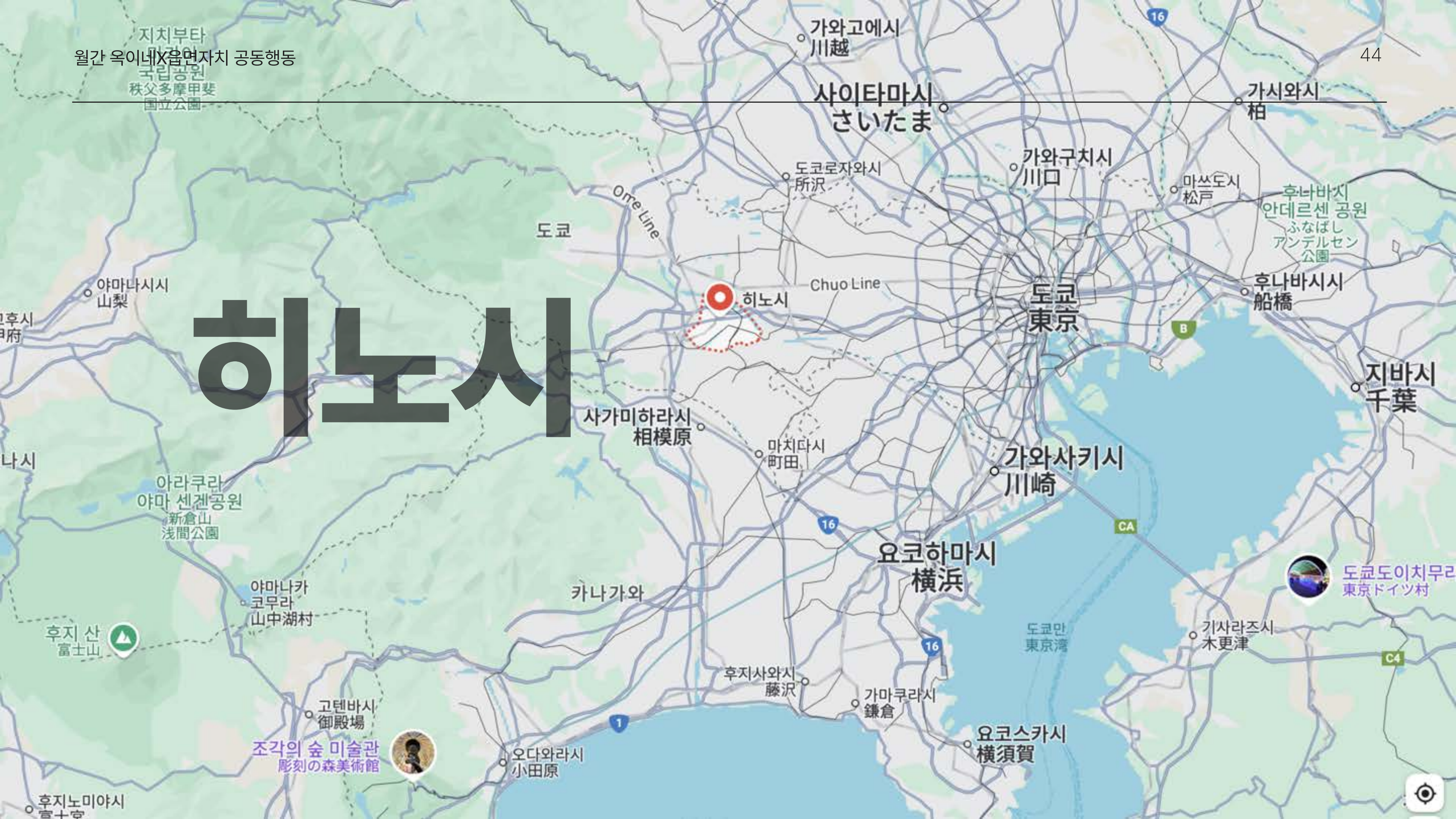


“정부 서비스가 있기 전에는 헬퍼가 각 가정을 방문해 진행하는 활동이 훨씬 유연했습니다. 단순 의료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곤약 만드는 법을 배운다거나, 차를 나눠마시다 돌아오곤 했던 거죠. 그러나 공식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이 풍경은 사라졌습니다.”

사카에무라 '게타바키 헬퍼(1999)'

월간 옥이네X읍면자치 공동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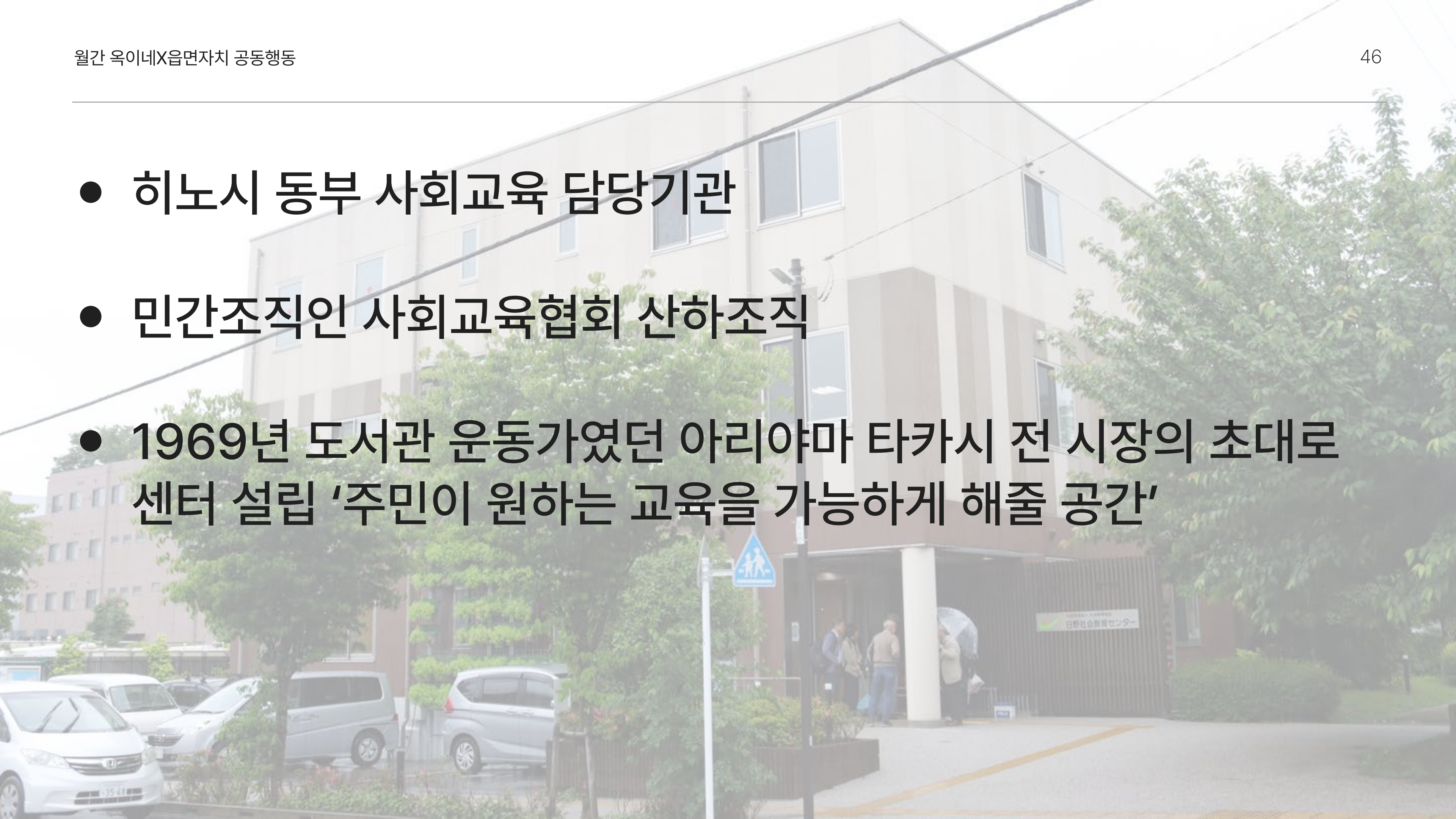
히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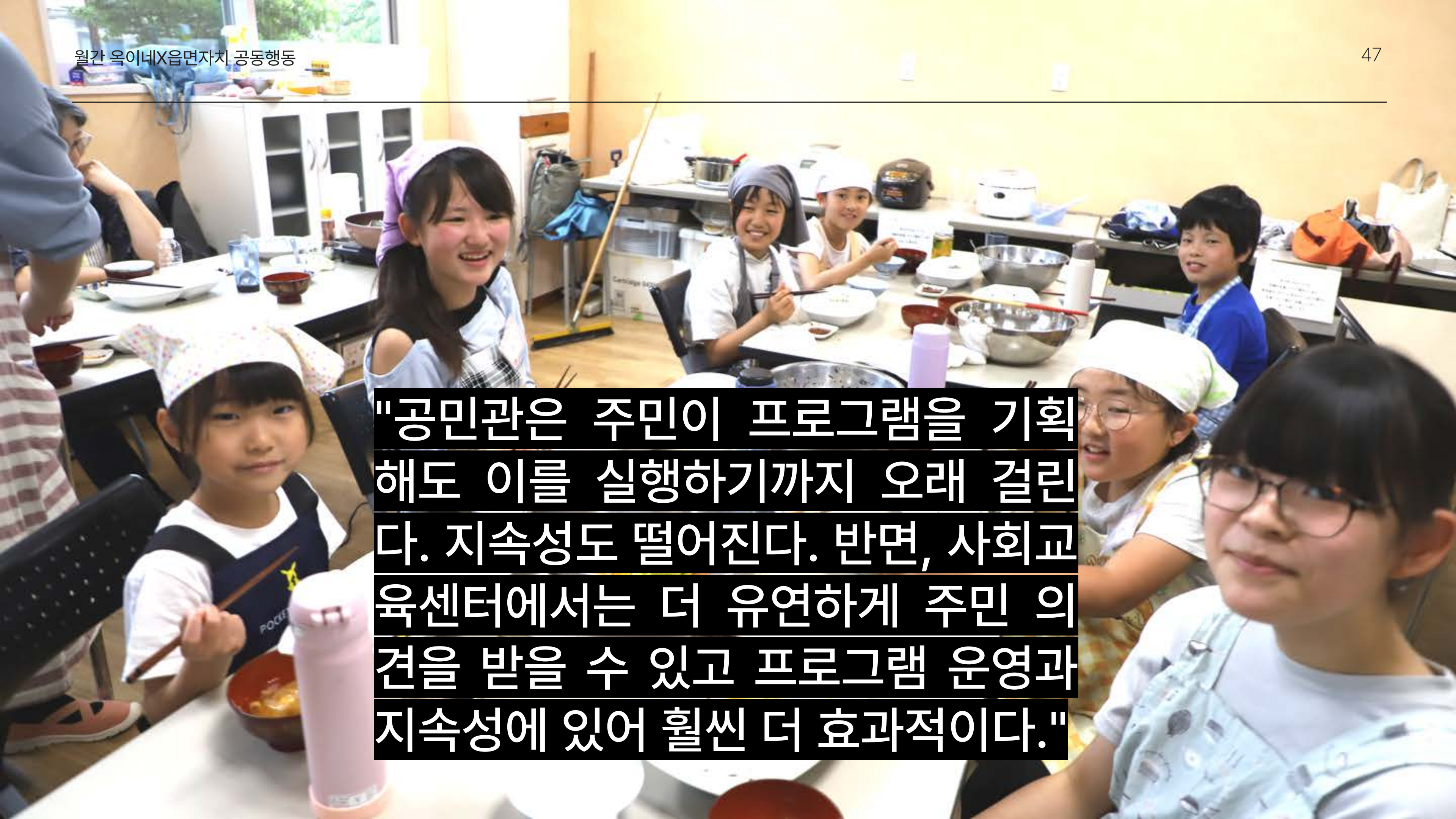


히노사회교육센터



- 히노시 동부 사회교육 담당기관
- 민간조직인 사회교육협회 산하조직
- 1969년 도서관 운동가였던 아리야마 타카시 전 시장의 초대로 센터 설립 '주민이 원하는 교육을 가능하게 해줄 공간'





"공민관은 주민이 프로그램을 기획해도 이를 실행하기까지 오래 걸린다. 지속성도 떨어진다. 반면, 사회교육센터에서는 더 유연하게 주민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성에 있어 훨씬 더 효과적이다."

事務報告書

히노시정도서관

다마주민자치연구소



"헌법은 국민주권과 주민자치를 보장하지만, 일본정부는 주민들이 이를 인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중앙정부가 국민을 주권자로 대하지 않으니 직접 공부해 요구해야 한다."

히노시민자치연구소

깨달음과 고민

앞으로 계속될 '읍면자치'를 위해

일본과 우리는 자치의 '토대'가 다릅니다. 그러나 일본 역시 시정촌 합병이라는 중앙집권 흐름 속에서도 지역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동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본 사례에서 무엇을 배우고,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 1. 자치의 가능성

-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삶
- 얼굴 있는 자치가 사람을 키우고 지역을 지킨다

☀ 2. 삶과의 연결

- 우리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 우리 안의 패배감을 어떻게 극복할까?
- 자부심을 가진 주민과 지역, 어떻게 만들어 갈까?

☀ 3. 미디어로서의 고민

- 자치·정치를 삶과 별개의 일로 여기는 사회에서 어떤 서사를 만들어야 할까?
- 쉬운 언어로 전하고 싶지만, 쉬운 말로 납작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 어떻게 해야 자치의 현장을 더 풍부하고, 가슴 뛰는 이야기로 전달할 수 있을까?

특집

054

면 단위 자치활동 타임라인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읍면자치'는 단어부터 낯설다.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네 삶과 그리 동떨어진 것만도 아니다. 주민들은 늘 자기 삶을 가꾸었고, 이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움직여왔으니 말이다.

수도권 일극화가 심각해진 지난 20여 년, 지역엔 주민 모르게 혐오시설이 입주하려는 시도가 술하게 이어졌다. 그러는 사이 어긋도, 생활 시설도 축소되며 농촌은 더 척박해졌다. 그러나 땅을 지키고 일구는 손도 멈추지 않았다. 이번 지면에서는 2006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옥천군 면 지역의 주민자치 활동을 일부나마 정리해 담는다.

2006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 및 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

- 2007 배배우도서관 건립 및 배배우소식지 발행
- 2009 마을순환버스 운행
- 2011 배배우 신문 재창간(배배우소식지) 및 산수화관역사업 운영
- 2016 안남배배우공동체 임농조합법인 설립
- 2019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공공목욕탕(안남개물기) △배배우 안뜰 및 뒤편 조성 △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 진행

2010

청산면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입주 반대 운동

면민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입주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여론을 형성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건설폐기물처리업 계획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채택, 옥천군은 해당 업체 입주를 불허했다.

055

자치활동 역사

2011-
2012

안내면 양계장 건립 반대 운동

2011년 11월, 안내면 담양리와 오덕2리에 대규모 양계장 시설 건축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생활권 침해와 '옥천군 가축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반대에 나섰다. 2012년 2월, 옥천군은 건축 인허가 신청을 반려했으나,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옥천군은 다시 허가를 내주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가축 사육제한 조례를 극도로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옥천군 담당부서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장장 2년 여에 걸친 투쟁은 담양리의 경우 마을에서 양계장 부지를 매입하고 8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한편 오덕2리 양계장 건축은 착공 연기로 중단됐다가 2015~2016년 해당 업체가 다시 건축을 준비하며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2011-
2013,
2022-

동이면 골프장 추진 반대 운동

동이면 지암리와 금암리 일원에 대규모 골프장이 개발된다는 내용이 공문화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현수막 설치, 주민설명회 개최 요구, 천막농성 및 생명버스, 골프장반대범군인 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2014년, 사업자가 옥천군에 입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골프장 건립은 중지됐다.

2022년 골프장 개발 움직임이 재개됐다.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이 기존 옥천군이 전개하던 생태관광에 모순되고, 주민 안전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생태조사 및 반대서명 진행, 골프장 반대대책위를 결성 등을 통해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2025년 2월, 충청북도는 골프장 조정을 위한 부지 용도변경을 조건부 승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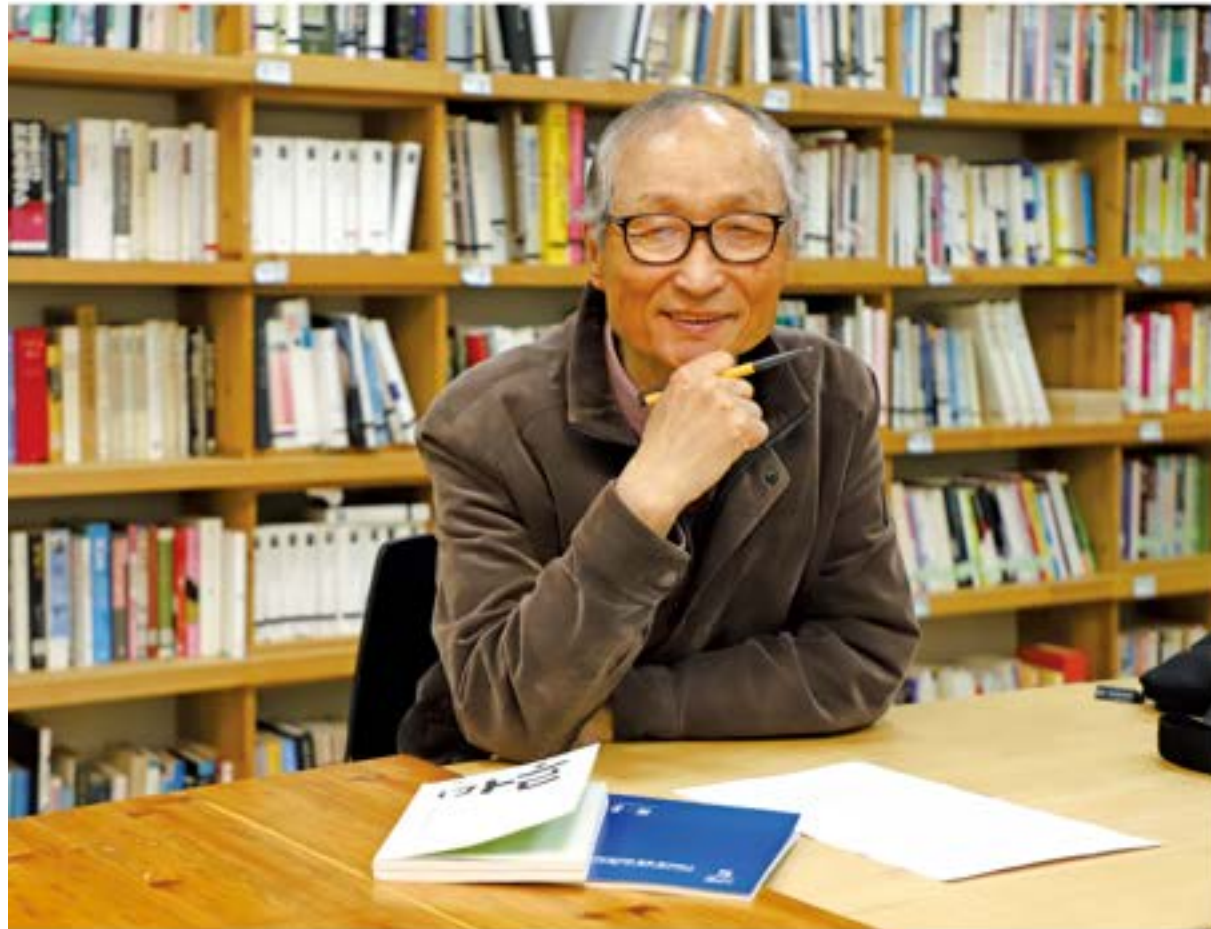


특집

050

면장 직선제의 짧은 역사, 긴 질문

충남 홍성군 홍동면 '풀꽃' 이번영 발행인



051

읍면자치의 기억(3)

1956년과 1960년, 단 두 번의 읍면장 직선제.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때는 전국 읍면에서 주민들이 직접 면장을 뽑았다. 누구에게 투표할지 고민하던 사람들, 면사무소 앞과 공목길에서 오간을 이야기, 마을 전체가 선거로 들뜨지 않았을까.

1960년 12월 26일 실시된 충남 홍성군 홍동면장 선거에서는 2대 면장에 34세의 청년 주호성이 당선된다. 한직 면장을 포함해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한 격전의 선거. 동시에 30대 청년이 '한직 프리미엄'을 뽑은 선거. 그러나 그의 임기는 겨우 여섯 달.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모든 것이 중단됐다.

물고 강렬했던 '주민 손으로 뽑는 면장'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흩어진 기록, 희미해진 기억. 그렇지만 그 기록을 붙잡고 읍면자치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노력도 분명 존재한다. 이번영(80) 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

홍동에서 나고 자란 그는 한국 최초의 지역신문인 '홍성신문' 창간 주역이자 현재는 고향에서 풀꽃지 '풀꽃'을 펴내는 언론인이다. 지역체제를 만들어 오랜 시간 지역에 헌신해온 그는, 면장-면의원 선거가 치러졌던 시절의 풍경을 기억하는 몇 안 되는 목격자이자 기록자이기도 하다. 2022년엔 마을학회 일소공동 학회지 '마을' 9호에 홍동면장 선거의 구체적인 정면을 담은 글(독립운동 지도자들, 면 자치에 참여하다)을 기고하기도 했다. 지역사회가 인물을 키우고, 주민이 직접 면장을 선택하던 시절의 얼굴이 보이는 자치가 고스란히 담긴 기록이다.

이번 자면에서는 그가 남긴 기억과 자료를 다시 들여다본다. 읍면자치권 확보 운동과 일본 정촌자치 사례를 함께 마주해온 지금, 읍면자치는 더 이상 과거의 것이 아니다. 작은 단위에서 출발한 물뿌리 자치의 역사를 짚으며, 우리가 되찾아야 할 자치의 얼굴을 함께 그려본다.

자치가 인물을 만들던 시절

"그때는 면장도, 면의원도 얼굴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10대였던 이번영 씨는 정치나 선거를 잘 아는 때는 아니었지만 마을 분위기만큼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다. 후보 정보를 담은 벽보 앞에 모여 토론하던 주민들, 집집마다 오간 이야기,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면 선거의 들뜬 분위기. 그것은 마을 전체가 정치와 연결되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기는 무려 다섯 차례나 면장 선거제도가 바뀌는 불안정한 정치 구조 속에 있었다.¹⁾ 1949년 간선제로 시작해 1956년 직선제, 1958년 임명제-1960년 다시 직선제, 그리고 1961년 또 임명제로, 자유당 정권의 유불리-군사 쿠데타로 인한 영향이었다. 결국 주민이 직접 읍면장을 뽑은 건 1956년과 1960년, 단 두 차례다.

¹⁾ 읍면직화 선거는 1952년 시작해 1957년, 1960년 총 3회 실시됨

다짐

w.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그러나, 이것이 오래 지치지 않고 지속되려면 많은 사람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시도라도 멈추지 않고 이어간다면, 자치의 씨앗은 분명 어디선가 자라날 것입니다(사실 이미 곳곳에 자라고 있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시작해봅시다.



월간 옥이네

구독 신청



음면자치 공동행동

회원 가입



읍면자치가 필요한 이유

읍면자치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

월간 옥이네	2025.3~현재
읍면자치 공동행동	2025년 집중학습회 등
일소공도 월례세미나	2025년 상반기
학회지 '마을'	2022년 봄호



질의응답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요:)



함께 질문하고
함께 상상해봅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